

조선시대 북한산과 불교의 연고

사찰과 산성 승군을 중심으로

김용태

동국대학교(서울) 불교학술원 HK교수, 한국불교사 전공

yotai@dongguk.edu

- I. 머리말
 - II. 16세기 이전 역사 기록의 북한산 사찰
 - III. 북한산성 승영 사찰의 설치와 승군 활용
 - IV. 북한산성 도총섭 계파 성능과 승군제의 변천
 - V. 맺음말
-

I. 머리말

북한산(北漢山)은 한강(漢江) 북쪽에 있는 산으로 풍수지리에서는 서울을 감싸고 지키는 진산(鎭山)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룬다고 하여 삼각산(三角山)으로도 불렸고, 인수봉이 아이를 등에 업은 모습이라고 하여 옛날에는 부아악(負兒嶽)이라고도 했다.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왔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유명 사찰이 들어서면서 불교 신앙과 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웠다.¹

조선 초에도 수륙재(水陸齋)로 이름난 진관사(津寬寺)를 비롯하여 몇몇 사찰이 왕실불교의 요람이 되었다. 불교계는 임진왜란 때 의승군(義僧軍) 활동으로 충의의 공적을 인정받아 새로운 존립의 길을 모색해 나갔다. 국가에서는 승려 자격과 사찰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승군과 승역(僧役)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었다. 그 출발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였지만 1711년 북한산성(北漢山城)이 축성되고 승영(僧營)이 정비되면서 의승군 운용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북한산과 불교의 관계를 사찰과 산성 승군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먼저 16세기 이전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북한산 사찰의 존재 양상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의 제도화 과정에서 북한산성 승영 사찰의 설치와 승군 활용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편), 『북한산의 불교유적: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1999)에서는 1장 북한산의 불교문화사적 의의(정병삼), 2장 북한산성의 사원 및 사지의 보존과 복원에 대하여(정재훈), 3장 북한산 불적의 현황(손영문·노윤상), 4장 북한지역의 불적과 불교미술(김창균), 5장 문헌에 수록된 북한산의 불적(손영문·이관규·박상준)으로 나누어 북한산 불교 유적을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했다.

초대 도총섭을 맡았던 계파 성능(桂坡聖能)의 활동과 승군제의 변천, 북한산 불교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울의 방어기지이자 불교 신앙의 거점이었던 북한산 권역의 불교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조선시대 북한산과 불교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II. 16세기 이전 역사 기록의 북한산 사찰

북한산과 불교의 인연이 확인되는 것은 신라 진흥왕(재위 540~576)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흥왕은 인도의 아소카왕을 모델로 하여 전륜성왕(轉輪聖王)을 내세우면서 정복지에 순수비(巡狩碑)를 세웠다. 한강 유역의 북한산에도 순수비가 건립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석굴에 사는 도인(道人)이 등장한다. 여기서 도인은 새로 편입한 지역의 인민을 교화하는 존재로서 승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² 만일 그렇다면 북한산 유역에 불교가 들어오고 사찰이 세워진 시점은 6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기록상 확실한 것은 신라 태종 무열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장춘(長春)과 파랑(罷郎)의 명복을 빌기 위해 659년에 창건한 장의사(莊義寺)를 가장 오래된 사찰로 볼 수 있다.³

2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2004), 135~152쪽;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향토서울』 81(2012), 45~77쪽. 마운령순수비의 뒷면에는 왕을 수행한 신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沙門道人 法藏과 慧忍이 기재되었고 한 칸 띄고 대등 이하 관료들이 열거되어 있다. 당시 승려를 사문도인이라고 했고 그 지위도 매우 높았음을 볼 수 있다.

3 『三國史記』新羅本紀 太宗武烈王 6년(659) 10월조. 『三國遺事』紀異 「長春郎罷郎」에는 660년 7월에 벌어진 백제와의 黃山(황산벌) 전투에서 죽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박찬홍, 「장의사의 창건 배경과 장춘랑파랑설화」, 『서울과 역사』 96(2017), 7~47쪽 참조.

통일신라시대에는 의상(義相) 계통의 화엄학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했는데, 최치원(崔致遠)이 904년에 쓴 중국 화엄종의 제3조 법장(法藏)의 전기인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는 의상계와 관련이 깊은 해동(海東) 화엄의 10산과 12사 명칭이 나온다. 즉 팔공산 미리사(美理寺),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태백산 부석사(浮石寺), 강주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와 보광사(普光寺), 웅주 가야협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岬寺), 삭주 화산사(華山寺), 양주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전주 무산 국신사(國神寺), 한주 부아산 청담사(靑潭寺)로서, 청담사가 위치한 부아산이 바로 북한산을 가리킨다.⁴

부아산 청담사는 조선 전기에 폐사된 이래 거의 잊힌 사찰이 되었지만, 2008년 구파발역 건너편 앵봉산 자락에서 6동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당시 정면 9칸, 측면 1칸의 남향 건물지의 북쪽 기단부 주변에서 ‘삼각산 청담사 삼보초(三角山靑潭寺三寶草)’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 말부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려 중기에 중수되었다가 기와 제작 시기인 여말선초 때 다시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근처에는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석조보살입상이 봉안된 자씨각(慈氏閣), 그리고 부서진 석불좌상 및 석조 부재가 있는데 이 일대는 예로부터 탑골이라 불렸다고 한다.⁵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에 중경(中京: 개경), 동경(東京: 경주), 서경(西京: 평양)의 3경이 성립되었고, 문종 때인 1067년에 현재의 서울을 남경(南京)으

4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韓國佛教全書』 3, 1980, 775쪽). 『삼국유사』 義解 「義湘傳教」에서는 화엄 10찰로 태백산 부석사, 가야산 해인사, 비슬산 옥천사, 지리산 화엄사에 더하여 원주 비마라사, 금정산 범어사의 6개 사찰이 나온다.

5 서울역사편찬원(편), 『서울 洞의 역사 은평구 1: 개관 진관동 갈현동』(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1), 182쪽.

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1096년(숙종 1)에 음양관(陰陽官) 김위제(金謂禪)가 『도선비기(道詵秘記)』 등을 인용해 “삼각산의 남쪽 목멱산(木覓山) 북쪽 평지에 남경 성을 건립하고 수시로 임금이 순행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건의했고,⁶ 1101년 9월에 남경 개창도감(開創都監)이 설치되어 1104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남경의 궁궐 자리는 지금의 청와대 근처로 추정된다. 풍수도참에 의해 북한산이 남경의 주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역대 국왕들의 행차도 빈번히 이루어졌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한양부(漢陽府)로 바뀌었는데,⁷ ‘한양’은 북한산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 북한산을 대표하는 사찰은 진관사로서, 진관사는 고려의 8대 국왕 현종이 천추(天秋)태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진관(津寬) 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이다. 현종은 1012년 원래의 신혈사(神穴寺) 자리에 절을 세우고 진관사라 이름했는데, 이후 이 절은 고려 왕실이 후원하는 주요 사찰로서 높은 위상을 가졌다. 예를 들어, 1090년 10월에는 선종이 행차해 기우(祈雨)를 목적으로 500나한재(羅漢齋)를 개설했고, 1099년과 1110년에는 숙종과 예종이 절에 들렀다.⁸

고려시대 국왕과 북한산의 인연은 진관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현종은 1010년 거란이 쳐들어오자 태조의 재궁(粹宮)을 부아산(북한산) 향림사(香林寺)에 임시로 모셨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현릉(顯陵)으로 옮겼다.⁹ 승가사(僧伽寺) 또한 국왕들이 자주 행차하는 곳이었는데, 매년 봄·가을에 사흘씩 열리는 재회(齋會)로도 유명했다. 이곳의 승가대사(僧伽大師) 상(像)은 인도 출신으로 중국 당나라에서 교화를 펼쳐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은 승가대

6 『高麗史』列傳35 方技 金謂禪.

7 『高麗史』志10 地理1 楊廣道 南京留守官 楊州.

8 김광식·한상길, 『진관사』(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8), 12~21쪽.

9 『高麗史』世家 顯宗 7년(1016) 1월 27일.

사의 석조상으로, 개인의 기원을 들어주고 가뭄과 수재 같은 천재지변을 해소하는 영험한 존재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역대 고려 국왕들은 남경에 행차할 때 대개 승가사에 들러서 참배하곤 했다. 1090년 선종은 승가사와 장의사, 진관사에 와서 재물을 보시했고, 의종은 1167년 9월에 승가사와 장의사, 그리고 문수사(文殊寺) 등에 행차했다.¹⁰

한편 진관사 인근에는 삼천사(三川寺)가 있는데 이곳의 마애석가여래입상은 고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전기에 법상종 승려 가운데 최초로 왕사와 국사가 된 대지국사(大智國師) 법경(法境, 943~1034)이 출가 후 주석한 곳이 바로 이 삼천사였다. 법경은 1020년 왕사로 임명된 뒤 법상종 종찰인 개경 현화사(玄化寺)의 초대 주지를 했고 1032년 국사로 책봉되었다.¹¹ 삼천사의 명칭은 조선 후기에 오늘날처럼 삼천사(三千寺)로 바뀌었는데, 이 절에 3,000여 명이 머물며 수행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¹²

고려 말 공민왕 때에 왕사와 국사를 역임한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가 주석한 중흥사(重興寺)도 북한산의 주요 사찰이었다. 보우는 1341년 중흥사의 주지가 되었고 수행처로서 동암(東庵)이라는 암자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태고암(太古庵)이고 보우는 여기에서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지었다. 보우는 원나라에 가서 임제종 선승 석옥 청공(石屋淸珙)으로부터 법을 전수해 오는데, 「태고암가」를 본 청공이 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가했다고 한

10 『高麗史』世家 宣宗 7년(1090) 10월 19일·27일; 『高麗史』世家 毅宗 21년(1167) 9월 5일.

11 북한산 삼천사 옛터에 대지국사비 귀부와 이수만 남았는데 1960년대에 이어 2005~2008년의 발굴조사에서 새로 255점의 비편이 발견되어 630여 자의 글자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李靈幹이 아니라 李齡幹이 비문을 썼고 1041년(고려 정종 7)에 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김우림, 「비편서 역사 속 인물을 찾아내다: 베일 벗은 천년사찰 북한산 삼천사지」, 《법보신문》, 2007년 12월 12일.

12 16세기 전반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삼각산 三川寺로 되어 있다. 한편 조선 후기의 『북한지』에는 三千寺로 나오며 원효가 창건하고 진관이 중창한 절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우는 조선 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 선종의 정통 법맥으로 내세워진 태고법통(太古法統)의 조사가 되었고 그의 원증국사(圓證國師) 탑과 이색(李穡)이 쓴 비가 태고암 부근에 세워졌다.¹³

한양을 도성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북한산의 종교적·문화적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초 사전(祀典) 체제를 정비하면서 불교식 재회는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었고 사대부 관료층의 불교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그렇지만 조선 태종부터 세종 대까지 추진된 승정(僧政)체제의 축소와 교단 정비 과정에서도 국가 지정 사찰과 왕실 관련 사원은 지속적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서울 인근 북한산의 사찰들도 포함되었고 15세기에는 이전과 다른 크나큰 변동은 없었다.

조선에서 왕실불교 전통이 지속된 것은 불교가 국왕과 국가의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하고 왕실 구성원의 내세 명복이나 왕생을 추구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국왕의 입장에서도 사원과 왕실 재정의 유착관계 및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고 국태민안 기원, 민심 무마와 왕권 강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불교식 사후 관념과 의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강고한 전통이었다. 국상(國喪) 가운데 사십구재(四十九齋)는 중종 대까지 국행(國行) 의례 수준에서 행해졌고 이후에도 왕실의 내행(內行) 의례로 지속되었다. 이는 왕실뿐만 아니었고 사족(士族) 중에서도 유교의 효의 명분에 의거해, 영당(影堂)이 부속된 사찰이나 분암(墳庵)에 해당하는 사암(寺庵)을 제사의 보완 시설로 활용하면서 유교와 불교 의례를 함께 설행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온다.¹⁴

조선 왕실에서는 능침사(陵寢寺)나 원당(願堂)에서 선왕 선후의 명복을 빌

13 최병헌, 「태고보우의 불교사적 위치」, 『한국문화』 7(1986), 97~132쪽.

14 박정미, 「조선시대 불교식 상·제례의 설행 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고 대개 ‘조종(祖宗)의 유훈(遺訓)’을 내세워 불교 신앙과 의례를 행했다. 예를 들어 세종은 소헌왕후의 상을 당하여 대군들이 불교 경전을 펴내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를 잘못이라 하지만 어버이를 위해 불사(佛事)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이전에 내가 모후의 상을 당하여 세 번 법회를 베풀었고 태종께서도 대자암(大慈庵)에 가라고 했으나 마침 일이 있어 가지 못했는데 실은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회상했다.¹⁵ 이때 소헌왕후의 초재(初齋)는 장의사에서 치렀고 이후 대상재(大祥齋)까지 진관사, 양주의 회암사(檜巖寺) 등 북한산과 서울 인근의 사찰에서 행해졌다. 재회 때에는 대군, 승지와 예조 당상이 참석하고 8,000에서 1만 명에 이르는 많은 승려에게 반승 행사를 베풀었다고 한다.¹⁶

북한산과 관련된 왕실의 불교 의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물과 물의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고 천도하는 수륙재(水陸齋)였다. 권근(權近)의 「진관사 수륙사 조성기(津寬寺水陸社造成記)」에서는 태조가 “내가 나라를 맡은 것은 오로지 조종(祖宗)께서 선업(善業)을 쌓은 데서 나온 것이라 그 덕에 보답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 수 없다. 신하와 백성들 가운데 나랏일에 죽거나 혹은 죽은 뒤 제사를 받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쓰러져도 구원받지 못함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스럽다. 이에 역사가 오래된 사찰에 수륙 도량을 마련하고 해마다 수륙재를 개설해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 마땅한 곳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에 서울의 삼각산부터 도봉산까지를 살펴본 결과 최적의 사찰로 진관사가 낙점되었다. 1397년(태조 6) 2월 태조가 직접 행차하여 수륙사(水陸社) 3단(壇)의 위치를 정하고 9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조종의 영실(靈室), 부엌과 곳간 등을 포함해 총 59칸이

15 『世宗實錄』 28년(1446) 3월 26일.

16 『世宗實錄』 28년(1446) 3월 29일.

었다.¹⁷

이후 진관사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인 1월 15일에 수륙재가 열렸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월 15일에 행해졌다. 고려시대에 국가 의례로 열린 연등회(燃燈會)도 상원절인 1월 15일이나 2월 15일에 거행되다가 고려 말부터 민간에서 4월 8일 초파일에 여는 것이 대세가 되었는데, 고려 왕실의 주요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와 조선 태조가 명한 진관사 수륙재의 시행일이 같은 점이 흥미롭다. 진관사 수륙재는 조선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이어져 갔다. 억불 시책을 펼친 태종도 1418년에 넷째 아들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진관사에서 열면서 수륙재 위전(位田) 100결을 하사하고 애달픈 심정을 담은 제교서(祭敎書)를 내렸다.¹⁸ 또 1421년에는 세종이 향후 태종 내외의 명복을 비는 기재(忌齋)를 장의사와 진관사에서 올리도록 했다.¹⁹

한편 1442년(세종 24)에는 진관사에 독서당(讀書堂)이 설치되었다. 독서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인 독서당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독서에 전념하도록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와 함께 운영되었다. 이때 하위지(河緯地), 이석형(李石亨),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성삼문(成三問)의 6인이 선발되어 진관사 등에서 공부했다.²⁰ 진관사는 독서당이 개설된 최초의 사찰이었고 이후 절에서 사가독서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진관사의 수륙재는 16세기에도 지속되었는데 태조 이후 연산군까지 100년 남짓 동안 모두 30회 이상의 수륙재와 기신재(忌晨齋)가 진관사에서 개설되었다. 다만 중종 이후 국가 차원의 수륙재는 열리지 않았고 대신 왕실

17 『東文選』 권78 記「津寬寺水陸社造成記」.

18 『太宗實錄』 18년(1418) 3월 3일.

19 『世宗實錄』 3년(1421) 1월 19일.

20 『慵齋叢話』 권4.

의 후원이나 사찰 및 민간의 주도하에 전통이 이어졌다. 수륙재는 영혼 천도만이 아니라 장수와 건강 축원, 질병 구제와 천재지변 극복, 후손의 복락 기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전쟁 도중에 죽은 이들의 매장을 승도들이 주로 담당했고,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영혼인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를 비롯한 천도재가 빈번히 열렸다. 전란이 끝나고 얼마 안 된 1606년(선조 39)에는 거사들이 도로를 수리한 후 서울의 북쪽 창의문(彰義門, 현재 자하문) 밖에서 승속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수륙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는 여러 궁가(宮家)에서 후원한 것으로 시장 철시가 이루어졌고 사녀(士女)들이 큰길에 가득 찼다고 한다.²¹

III. 북한산성 승영 사찰의 설치와 승군 활용

임진왜란에서 보인 승군(僧軍)의 활약은 이후 승역(僧役)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변화를 낳았다. 전란 후 양인(良人) 노동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국가의 부역 및 조세 정책과 연동하여 승역이 주목되었고, 인조 대 남한산성 조영에 승군이 동원되면서 그 노동 효율성이 입증되었다.²² 조선 후기 승역의 활용은 남한산성의 방비를 승군이 맡은 것이 계기가 되었고, 숙종 대에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남·북한산성 의승군 운용이 제도적으로 안착했다.²³ 승역은 궁궐 조성이나 산릉(山陵) 조영에도 부과되어 광

21 『宣祖實錄』 39년(1606) 6월 1일; 『宣祖實錄』 39년(1606) 6월 21일.

22 이종영, 「승인호패고」, 『동방학지』 17(1963), 189~217쪽.

23 이종수, 「조선후기의 승군 제도와 그 활용」,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고영섭, 「한국사상 사학: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2(2014); 윤용출, 「조선후기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해군 때 이후 현종 대까지 궁궐 영건에 승군이 소집된 것은 6차례, 산릉역도 인조부터 영조까지 20차례 넘게 이어졌다.²⁴ 승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본향(本鄉)의 호적(戶籍)에 승호(僧戶)를 기재하여 승려를 직역(職役)의 하나로 파악했다.²⁵ 승군이 부담하는 역인 승역은 사찰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승려 자격과 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역으로 불교 존립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승군 전통의 지속은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통솔하는 승장에게 주어진 총섭(摠攝) 직책의 재개로 이어졌다. 1624년부터 1626년까지 남한산성 축성에 승군이 동원되었고 이때 이를 총괄하는 8도 도총섭(都摠攝) 직책이 부활하면서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임명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승군이 배정된 주요 시설에 총섭을 두었는데 승직 인사는 예조(禮曹)에서 담당했다.²⁶ 총섭 직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왕실 족보 『선원록(璿源錄)』 등을 보관하는 사고(史庫)의 수호 총섭을 들 수 있다. 강화도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무주 적상산 네 곳에 사고가 설치되었고 각각 전등사(傳燈寺), 월정사(月精寺), 각화사(覺華寺), 안국사(安國寺)가 수호사찰로 지정되었다.²⁷ 이와 함께 태조의 제전(祭殿)이 있는 함경도 석왕사(釋王寺)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등 왕실의 주요 원당, 그리고 왕명으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참조.

- 24 윤용출, 「조선후기의 부역 승군」, 『부산대학교인문논총』 26-1(1984), 453~475쪽. 궁궐 조영에 승군이 참여한 기록은 『光海君日記』 1년(1609) 11월 26일; 『光海君日記』 10년(1618) 4월 24일; 『光海君日記』 13년(1621) 2월 1일 등이 있고 산릉역은 『仁祖實錄』 4년(1626) 4월 21일 등 참조.
- 25 『肅宗實錄』 원년(1675) 5월 9일. 이에 대해서는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2006), 255~302쪽 참조.
- 26 『仁祖實錄』 2년(1624) 7월 23일.
- 27 『光海君日記』 2년(1610) 9월 23일. 이때 오대산 사고에 승군을 두어 수호하게 하고 잡역을 면제하도록 했다.

로 사액된 밀양과 해남의 표충사(表忠祠)와 묘향산 수충사(酬忠祠) 등에서 충
섭 등의 승직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²⁸

조선 후기의 제도적 승군 활용의 단초가 된 남한산성 승군에 대해 먼저 살
펴본다. 남한산성은 강화도 등과 함께 서울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찍부
터 주목되었다. 1624년 4월부터 1626년 1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루어진
남한산성 축성 공사에는 많은 승군이 동원되었다.²⁹ 당시 승군의 통솔을 맡은
이는 남한산성 초대 8도 도총섭에 임명된 벽암 각성이었다. 또 그 밑으로 승
중군(僧中軍) 1명, 교련관(敎鍊官) 1명, 초관(哨官) 3명, 기패관(旗牌官) 1명이
배정되어 승군을 관리했다. 남한산성의 성곽과 제반 시설이 완공되자 수호관
청으로 수어청(守禦廳)이 설치되었고 기존의 총융사(摠戎使)를 수어사(守禦使)
로 바꾸어 이를 총괄하게 했다.³⁰

산성 내에는 모두 9개의 사찰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에 승군이 주둔하면서
산성의 방비를 맡았다. 9개 사찰 중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는 이전부
터 있었고 개원사(開元寺)·국청사(國淸寺)·남단사(南壇寺)·동림사(東林寺),
장경사(長慶寺)·천주사(天柱寺)·한양사(漢興寺)의 7사는 산성 축성과 함께 새
로 건립되었다. 그리고 뒤에 영원사(靈源寺)가 세워져 모두 10개의 사찰이 되
었다.³¹ 한편 17세기 중반 북벌론(北伐論)을 주장하며 군비 확장책을 추진하
던 효종 때에는 의승(義僧)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면서 남한산성 승군과 승역

28 『光海君日記』 5년(1613) 2월 25일.

29 『仁祖實錄』 2년(1624) 11월 30일.

30 김용태,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2015), 183~205쪽.

31 『南漢志』 권3 佛宇. 『남한지』는 1846년(헌종 12) 홍경모가 찬한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한고초62-3) 『중정남한지』는 13권 6책의 필사본이고 서울대학교 규장각본(奎 4068)은 13권 3책이다.

이 정책적 논의 대상이 되었다.³²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는 도성 방위의 중요성이 다시금 거론되었는데,³³ 그 결과 18세기 초에 북한산성 축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1702년 우의정 신원(申琬)이 창의문 밖 탕춘대 터부터 성을 쌓아 도성 방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³⁴ 1704년 2월 일차적으로 도성의 수축이 먼저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³⁵ 이어 1710년에 북한산성 축성 문제가 재차 부상하여 1711년 산성 수축이 시작되고 10월에 공역이 마무리되었다.³⁶ 산성의 수축에는 승군도 동원되었는데, 산성 둘레는 남한산성보다 1,320보 이상 큰 7,620보였고 대문 4개, 암문 10개, 장대(將臺) 3개 등이 설치되었다. 또 124칸 규모의 행궁(行宮)을 건립하는 한편 곡식과 군기를 쌓아두는 등 방어 요새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³⁷ 다음 해인 1712년 4월에는 숙종이 서문을 통해 북한산성에 직접 행차했고 시단봉까지 올랐다고 한다.³⁸

북한산성에는 방비를 위해 승영(僧營) 사찰을 두었다. 산성 안에는 원래부터 있던 중흥사(重興寺)와 태고사(太古寺) 외에 1712년에 국녕사(國寧寺), 보광사(普光寺), 보국사(輔國寺), 서암사(西巖寺), 용암사(龍巖寺), 원각사(圓覺寺), 진국사(鎭國寺)가 새로 건립되었고, 1717년과 1722년에 부왕사(扶旺寺), 상운사(祥雲寺)가 추가로 세워지면서 모두 11개의 진호(鎭護) 사찰이 완비되

32 박세연, 「17-18세기 승군역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변전제의 시행」, 『불교학보』 98(2002), 9~36쪽.

33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서울: 서울학연구소, 1988), 40~62쪽.

34 『肅宗實錄』 28년(1702) 8월 11일.

35 『肅宗實錄』 30년(1704) 2월 15일; 『備邊司謄錄』 肅宗 30년(1704) 2월 25일.

36 『備邊司謄錄』 肅宗 37년(1711) 2월 9일; 『肅宗實錄』 37년(1711) 2월 10일; 이근호, 앞의 논문, 75~77쪽 참조.

37 『萬機要覽』 軍政篇 3 摠戎廳 北漢山城.

38 『承政院日記』 肅宗 38년(1712) 4월 10일.

었다. 이 중 북한산성의 수사찰은 고려 태조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938년에 창건했다는 증흥사였는데, 30여 칸이 남아 있던 것을 산성 축조 후 136칸으로 증창했다.³⁹ 이들 북한산성 승영 사찰에는 승군이 주둔하면서 방비를 담당했으며, 승군을 통솔하는 승영의 책임자로 승대장(僧大將)을 임명하여 8도 도총섭(都摠攝)을 겸임하게 했다.⁴⁰ 도총섭 밑에는 중군(中軍) 좌·우 별장(別將)과 천총(千摠), 좌·우 병방(兵房), 교련관(敎鍊官), 기패관(旗牌官) 등이 배속되었고, 각 사찰에는 승장(僧將)과 수승(首僧) 1명씩이 배정되었다.

축성을 주관한 세 군영(軍營)에서 각각 산성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맡았으며, 산성 운영을 위한 기구로 경리청(經理廳)이 설치되었다.⁴¹ 승군이 주둔한 승영 사찰 또한 3군영의 관할지에 배치되어 산성 방비를 담당했다.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상운사·서암사·진국사는 북문(北門)을 중심으로 한 산성 북쪽을, 금위영(禁衛營) 소속의 보광사·보국사·용암사·태고사는 대동문(大東門, 현재 대성문) 주변의 산성 동쪽을, 그리고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국녕사, 원각사, 부왕사는 대서문(大西門) 인근의 산성 서쪽을 맡았다.⁴² 승영 사찰은 방어상 중요한 산성 내의 수구나 성문, 암문 근처에 있었고, 각 사찰은 화약 등 각종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 창고나 승군이 훈련하는 승영 공간과 예불

39 『北漢誌』는 聖能이 북한산성 8도 도총섭 직책을 후임자인 瑞胤에게 인계할 때 기록하여 1745년(영조 21)에 간행한 책이다. 지도에 이어 道里, 沿革, 山谿, 城池, 事實, 官員, 將校, 寺刹, 倉廩, 定界, 古蹟 등 14조로 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한고려62-14)과 서울대학교 규장각본(奎3299) 참조.

40 『備邊司謄錄』 肅宗 38년(1712) 4월 13일.

41 이현수, 「북한산성 축조와 경리청의 치폐」, 『한국군사학논집』 31(1986), 231~248쪽.

42 윤기엽,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2014), 493~533쪽. 국녕사는 의상봉, 보광사는 대성문, 보국사는 금위영, 부왕사는 휴암봉, 상운사는 영취봉, 용암사는 일출봉, 원각사는 증봉, 증흥사는 등안봉, 태고사는 태고대 아래에, 서암사는 수구문 안에 있었고, 진국사는 노적봉 밑 중문 안에 위치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⁴³ 그리고 북한산성 승영 및 승군의 운영을 위해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총 900석의 환곡(還穀)을 조성하여 군량을 조달했다.⁴⁴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승영이 조성된 후 남한산성에 더하여 추가로 의승군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1714년(숙종 40)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제(義僧防番制)가 완비되었다. 남·북한산성에는 각각 승군 약 350명이 1년에 6차례에 걸쳐 윤번 교대했는데, 이를 합치면 두 산성에 연간 700명 규모의 승군이 동원되었고,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승려들이 돌아가며 와서 승역을 졌다.⁴⁵ 북한산성의 승영을 관할하는 승대장은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8도 도총섭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전국 승려의 동원과 산성의 승군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처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의승군제가 정착하면서 승역이 국가 운영체제 안에서 제도화되었다. 이는 승도가 승역을 기반으로 공적 시스템에 편입되고 일반 백성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승역이 정례화와 국역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승도는 공민(公民)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찰은 군현제 질서에 편입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18세기 중반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된 이후 승역이 양역보다 커짐에 따라 절이 피폐해지고 승려가 크게 줄어드는 ‘사폐승잔(寺弊僧殘)’ 현상이 발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43 김선, 「북한산성 승영사찰의 공간 배치와 특징 연구」, 『백산학회』 115(2019), 113~141쪽.

44 『承政院日記』肅宗 38년(1712) 10월 10일.

45 여은경,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 총섭」, 『대구사학』 32-1(1987), 9~13쪽.

46 김선기, 「조선 후기 승역의 운영과 제도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3).

IV. 북한산성 도총섭 계파 성능과 승군제의 변천

북한산성의 초대 도총섭은 학가산인(鶴駕山人)으로 불린 계파 성능(桂坡聖能/性能)이었다. 그는 1745년(영조 21) 조상경(趙尙綱)이 쓴 시에서 “나이 여든의 승려가 빠른 걸음으로 산문을 나서네.”라고 읊은 데서 1660년대 중반쯤 태어났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성능은 어릴 때 출가한 이후 부휴계의 적전 백암 성충(栢庵性聰, 1631~1700)으로부터 계를 받았다.⁴⁸ 그는 임진왜란 때 불탄 화엄사 장륙전(丈六殿)을 1702년에 중창했고 숙종이 각황전(覺皇寶殿)의 편액을 내렸다. 이어 1705년에는 통도사(通度寺)의 세존 사리탑(계단) 중수에도 관여했다.⁴⁹ 이후 북한산성의 초대 도총섭이 되었는데, 성능은 남한산성 초대 8도 도총섭이었던 부휴계 벽암 각성의 문손이기도 했다.⁵⁰

그런데 계파 성능은 1728년(영조 4) 3월에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과 영조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론과 남인 일부가 결탁해 일으킨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공을 세우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북한산성에 다녀온 찬집청(撰集廳) 당상 송인명(宋寅明)이 영조에게 “북한산성에 성능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북한산성의 (도)총섭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공이 많습니다. 이번에 곤양(昆陽)의 적을 체포하는 일을 비밀리에 주선하고 상황을 탐지해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고 가자장(加資張)을 내려 포상했다.⁵¹ 여기서 곤양의 적

47 『鶴塘遺稿』 「贈聖能上人」; 김덕수, 「도총섭 성능의 생애와 활동」, 『서울과 역사』 112(2022), 51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166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48 『希菴集』 권25 上樑文 「智異山華嚴寺丈六殿重建上樑文」.

49 『無用堂遺稿』 권하 「梁山通度寺聖骨靈塔及湖南求禮華嚴寺丈六重修慶讚疏」(『韓國佛教全書』 9, 361쪽); 『曾谷集』 권하 「通度寺舍利塔創建重修略」(『韓國佛教全書』 12, 800쪽).

50 김용태, 「조선후기 화엄사의 역사와 부휴계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009), 381~409쪽.

51 『承政院日記』 靈照 4년(1728) 9월 30일.

이란 이인좌의 난에 가담하여 합천 등에서 저항하다가 거창에서 잡힌 정희량(鄭希亮)을 가리킨다.

성능은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인 1720년대 전반에 북한산성 도총섭을 일시 그만두고 해인사에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724년 해인사에서 간행된 『자기문절차조열(仔蔓文節次條列)』의 발문을 썼는데, “이리저리 찾다가 정본을 얻으려 수소문하여 남북으로 오갔으나 성곽에서 겨를이 없어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직책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절의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논의하여 마침내 판각하게 되었다.”라고 적었다. 또 이 책의 간기에는 ‘전(前) 남북양한도총섭(南北兩漢都揔攝) 대각등계(大覺登階) 계파 성능(桂坡聖能)’이라고 쓰여 있어 북한산성뿐 아니라 남한산성의 도총섭을 일시 겸임한 사실과 이때 직을 그만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합천 인근에서 활동하던 정희량을 잡는 데 공을 세운 것도 앞서 해인사에 주석했을 때의 연고를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파 성능은 1727년 무렵에는 다시 북한산성 도총섭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이만(金履萬)은 북한산 태고사에 유람을 갔을 때 총섭승 성능의 대접을 받은 사실을 회고했다.⁵³ 이후 1732년에는 흉년이 들어 많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었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북한산성 도총섭 성능이 자원하여 시신을 거두고 수습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그는 전국 각지에 승려를 보내 음식 구걸을 하는 이들에게 죽을 끓여 먹였는데 이를 들은 영조가 상을 내렸다고 한다.⁵⁴ 이후 1745년에는 서윤(瑞胤)에게 직책을 넘겨주면서 북한산성의 연혁과 현황을 담은 『북한지(北漢誌)』를 펴냈다. 이처럼 성능은 1720년대의 일정 기간 그리고 1736년부

52 『仔蔓文節次條列』(『韓國佛教全書』 11, 527~528쪽).

53 『鶴皋集』 「山史」.

54 『承政院日記』 靈照 8년(1732) 12월 21일.

터 약 2년간 직을 그만둔 시기를 제외하고 1711년부터 약 30년 동안 북한산성 도총섭 직책을 오래도록 수행했다.⁵⁵

한편 계파 성능은 북한산성 도총섭을 역임하면서 유서(儒書)와 불서(佛書) 등 다양한 서적의 판각을 주도했다. 1711년 북한산성이 축조되고 나서 성능은 태고 보우와 인연이 깊은 태고사를 중창했고, 1712년에 태고사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십구사략(十九史略)』, 『고문백선(古文百選)』 등 5,700판의 목판을 찍었다.⁵⁶ 또 1720년에는 중흥사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펴냈는데 그 시주질에 공양대시주(供養大施主)로 성능의 이름이 적혀 있다.⁵⁷ 1723년에도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이 중흥사에서 간행되었고 발문 또한 도총섭 겸 승대장인 성능이 썼다. 이 책은 같은 부휴계의 고승 영해 약탄(影海若坦, 1668~1754) 등이 교정을 보았다.⁵⁸

계파 성능은 북한산성 승군 운영의 기반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승역의 과증함은 계속 문제가 되었다. 주로 삼남 지방에서 서울 인근의 남·북한산성까지 올라와서 승군역에 종사했는데, 거리가 먼 사찰의 승려일 수록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1736년부터 약 2년간 북한산성 도총섭

55 계파 성능이 1745년 11월에 쓴 『북한지』 발문에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내던지고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동문서주한 지 이미 30년이다.”라고 회상한다. 1720년대 전반에 도총섭 직을 일정 기간 그만두었고, 1736년부터 2년 정도 護岩若休가 도총섭을 맡은 사실을 감안하면, 1711년부터 1745년까지 약 30년간 재직했다고 볼 수 있다.

56 『總衛營事例』 권3 軍色 公解.

57 『妙法蓮華經』(동국대학교 도서관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58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간기에는 1721년 판각이라고 나오지만 성능의 발(『韓國佛教全集』 11, 523쪽)은 1723년에 썼고 그 끝에 공식 직함인 ‘扶宗樹教 傳佛心燈 福國祐世 廣濟衆生 悲智普照 解行雙運 圓融無礙 一切種善 禪教都摠攝 兼八方都僧統 弘覺登階 國一紫都大禪 嘉義大夫 八道都摠攝 兼僧大將 桂坡聖能’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8도 도총섭 겸 승대장’으로 성능과 함께 歸玉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 이 무렵이 성능이 도총섭 직을 그만두었을 때가 아닌가 싶다.

을 맡았던 호암 약휴(護岩若休, 1664~1738)가 승려 신역(身役) 혁파 건의를 올렸고, 이후 1756년(영조 32) 남·북한산성 의승군의 운번제가 방번전제(防番錢制)로 바뀌었다. 이는 지방의 승도들이 산성에 직접 와서 역을 교대로 지는 대신, 매년 지역별·사찰별로 승려 수와 비용을 할당하여 고용전(雇用錢)을 거두어 상주 승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⁵⁹

『남북한의승방번변통절목(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에 따르면 남·북한산성 의승의 숫자는 당시 707명으로 남한산성의 방번승은 356명, 북한산성은 351명이었다. 방번전은 지역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승려가 많고 거리가 먼 전라도는 198명, 경상도는 249명으로 1명당 22냥이었다. 다음으로 충청도는 114명, 황해도는 66명, 강원도는 60명으로 1명당 각각 18냥으로 정해졌다.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 큰 절이 부족하고 승도가 적다고 하여 20명만 책정했고, 거리가 가까워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반액 정도인 1명당 10냥씩 내게 했다. 경기도에는 능원을 수호하는 사찰이나 원당 등 왕실 관련 사찰이 많았는데 대개 다른 승역이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6도의 사찰에서 내는 방번전을 합하면 1만 4,354냥이었고 운임을 뺀 실제 수령액은 1만 3,622냥이었다. 이 중 두 산성에 1년간 지급되는 공비(公費)는 1만 2,019냥이었다. 이것으로 상주 승군의 식료 등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남은 돈은 쓰임새가 더 컸던 남한산성 승영 사찰의 운영에 보태었다.⁶⁰

정조 때에는 잡역과 공물 부담으로 인해 남·북한산성의 방번전을 내는 데 어려움이 크고 승역을 저야 하는 승려 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들

59 우정상,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 1(1963); 김갑주, 「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1988), 25쪽. 호암 약휴에 대해서는 「昇平府仙巖寺重創主護巖堂若休大師傳」[高橋亨, 『李朝佛教』(大阪: 寶文館, 1929), 740~741쪽에서 부분 인용] 참조.

60 『備邊司謄錄』靈照 32년(1756) 1월 12일.

여 1785년(정조 9) 방번전을 감액했다. 번전은 이전의 약 40% 정도로 줄었고 결손액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했다.⁶¹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1750년(영조 26) 군포(軍布)를 2필에서 1필로 반감하여 내게 하는 균역법 시행으로 양인의 국역 부담이 경감되고 승역이 양역보다 상대적으로 커졌기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조 대 후반기에는 ‘승려도 백성’임을 내세워 산성을 제외한 국가 공역에 승려를 과도하게 동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릉역은 1757년을 끝으로 종식되었고 지방의 기타 공역도 필요한 양식을 관에서 지급하게 했다.⁶² 전에는 양역의 과중함을 피해서 승려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 18세기 후반부터는 승역을 피해 다시 환속하는 ‘역피역(逆避役)’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났다. 큰 사찰일수록 상황이 심각했는데, 방번전제의 시행과 반역 경감 등의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연동하여 나타났다.

한편 정조는 비운의 죽임을 당한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에 대한 추숭의 염으로 원침(園寢)인 현릉원(顯隆園)을 조성하고 1790년에 재궁(齋宮)이자 원침 사찰로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했다. 이어 용주사 주지 보경 사일(寶鏡獅駟)을 8도 도승통(都僧統)으로 임명하고 남·북한산성 8도 도총섭을 겸임하게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승려를 규정하고 교단을 관할하는 5규정소(糾正所) 체제가 성립되었다. 명종 대에 일시 재개된 선교양종의 본사 봉은사(奉恩寺)와 봉선사(奉先寺), 남한산성 개원사와 북한산성 중흥사였다. 이들 사찰에는 담당하는 도가 정해졌는데, 경기도는 5규정소의 공동 관할지역이었고 용주사는 전라도, 봉은사는 강원도, 봉선사는 함경도, 개원사는 충청도와 경상도, 중흥

61 오경후, 「조선후기 의승번전의 징수와 승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편), 앞의 책 (2013), 246~248쪽.

62 여은경, 앞의 논문에서는 영조 대 양역 변통론이 정조 대 의승 방번전의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사는 황해도와 평안도 사찰을 각각 맡았다.⁶³ 이는 조선 후기에 국가가 불교 교단을 관리·통제하려 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 북한산의 모습은 여러 유람기에서 확인되는데, 그에 따르면 북한산은 원래 서울 사람들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던 명산이자 승지(勝地)였지만, 북한산성이 축성된 뒤에는 서울을 방어하는 군사시설로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승영 사찰은 신앙이나 수행의 공간이라기보다 수도 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띤 곳이었고, 승려들도 유학자들과 시문을 나누는 학승이나 도를 닦는 선승이 아닌 성을 지키는 승군의 모습으로 주로 묘사되었다.⁶⁴

북한산에 산성과 승영 사찰이 세워지면서 진관사와 도선사(道詵寺) 등 북한산의 유서 깊은 사찰들도 중창 불사를 이어 갔다. 고려시대 이래 북한산의 명찰이었던 진관사는 서오릉에 들어가는 창릉(昌陵)과 홍릉(弘陵)의 제향에 쓰는 두부를 만드는 조포사(造泡寺)로 지정되었고 사찰의 사세를 계속 유지했다.⁶⁵ 한편 새로 지어진 사찰에 봉안할 불상이 다른 지역에서 이운되어 오는 등 불교 문화유산이 계속 늘어났다.⁶⁶ 18세기 전반에는 경기도의 불상을 전라도 조각승들이 주로 만들었는데, 이는 북한산성 초대 도총섭이었던 계파성능의 지역적 배경과 관련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⁶⁷

19세기에는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이전 시기에 정립된 불교 관련

63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편』(경성: 신문관, 1918), 825~826쪽; 高橋亨, 앞의 책, 1002~1003쪽.

64 이경순, 「조선후기 遊山記에 나타난 북한산의 불교」, 『인문과학연구』 20(2015), 9~26쪽.

65 『日省錄』 純祖 2년(1802) 4월 21일.

66 조태건,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북한산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2(2016), 253~277쪽.

67 최선일, 「남양주 홍국사 대웅보전 불상의 제작시기와 조각승의 추론」, 『불교미술』 19(2008), 3~30쪽에서는 조각승 進悅이 1713년에 제작한 경기도 고양 상운사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근거로 논지를 전개했다.

규정의 틀과 원칙이 깨지면서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나자 5규정소와 같은 제도적 기구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총괄하는 직책인 도승통이나 도총섭의 권위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서 지방의 이름난 사찰에서 주지의 상급 직책으로 승통이나 총섭을 두는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른 자의적 행태로 쓰이기도 했다.⁶⁸

1828년(순조 28) 총융사 이석구(李石求)는 북한산성 내 건물과 사찰 등의 중수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북한산성의 행궁과 관아, 사찰과 창고가 거의 모두 썩고 손상되어 당장 수리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달리 없으니 공명첩을 내어달라.”는 취지로 보고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300장이 지급되었다.⁶⁹ 전략적 요충지인 남·북한산성의 의승군은 19세기에 도 서울을 방어하는 군사적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그러나 1879년(고종 16) 11월에 북한산성 승창(僧倉)에 있던 군수 장비와 잡물, 전곡(錢穀), 둔토(屯土) 등이 무위소(武衛所)로 이관되었다. 이어 1894년 갑오경장 때는 남·북한산성 승군과 8도 도총섭 등 오랜 역사를 이어 온 관례적 제도가 폐지되어 종지부를 찍었다.⁷⁰

V. 맺음말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왔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북한산 사찰의 존재 양상을 간략

68 김영수, 『조선불교사고』(경성: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167~169쪽.

69 『備邊司謄錄』 純祖 28년(1828) 7월 23일.

70 이능화, 앞의 책, 964~965쪽.

히 정리해 보았다.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에 들어서도 북한산 불교는 국왕이나 왕실과 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한편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 이후 불교계는 새로운 존립의 길을 모색해 나갔고, 국가에서는 승려 자격과 사찰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승군과 승역을 국역체계 안에서 활용했다. 조선 후기에 의승군은 17세기 전반 남한산성에서 시작했고, 1711년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승영 사찰이 건립되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 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서울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던 북한산성의 승영 사찰 설치와 승군 운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북한산성 초대 8도 도총섭이었던 계파 성능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보고 19세기까지 승군제의 변천과 북한산 불교의 변화상을 고찰했다. 사찰과 승군을 매개로 하여 조선시대 북한산과 불교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 명산인 북한산에 담긴 불교 전통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겨 보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高麗史』.
『南漢志』.
『東文選』.
『萬機要覽』.
『妙法蓮華經』(東國大 소장).
『北漢誌』.
『備邊司謄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總衛營事例』(藏書閣 소장).
『鶴臯集』.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近現代』.
『韓國佛教全集』.
房斗天, 『希菴集』.

2. 논저

고영섭, 「한국사상 사학: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72, 2014.
김갑주, 「남북한산성 의승변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 1988.
김광식·한상길, 『진관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8.
김덕수, 「도총섭 성능의 생애와 활동」, 『서울과 역사』 112, 2022.
김선, 「북한산성 의승사찰의 공간 배치와 특징 연구」, 『백산학회』 115, 2019.
김선기, 「조선 후기 승역의 운영과 제도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김영수, 『조선불교사고』, 경성: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 김용태, 「조선후기 화엄사의 역사와 부휴계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2009.
- 김용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조영과 승군의 활용」, 『한국사상과 문화』 78, 2015.
- 노중국, 「신라 진흥왕의 한강 유역 점령과 巡狩」, 『향토서울』 81, 2012.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편), 『북한산의 불교유적: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1999.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2.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2013.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편찬위원회(편),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韓國佛教全書 3』,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1989.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편찬위원회(편), 『韓國佛教全書 9』,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1989.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편찬위원회(편), 『韓國佛教全書 1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1992.
-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편찬위원회(편), 『韓國佛教全書 12』,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사, 1996.
- 박세연, 「17-18세기 승군역 운영방식의 변화와 의승방변전제의 시행」, 『불교학보』 98, 2022.
- 박정미, 「조선후기 불교식 상·제례의 설행 양상: 왕실의 국형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찬홍, 「장의사의 창건 배경과 장춘랑파랑설화」, 『서울과 역사』 96, 2017.
- 서울역사편찬원(편), 『서울 洞의 역사 은평구 1: 개관 진관동 갈현동』,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21.
- 여은경,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 32-1, 1987.
- 오경후, 「조선후기 의승변전의 징수와 승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 우정상, 「남북한산성 의승방변전에 대하여」, 『불교학보』 1, 1963.
- 윤기엽,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2014.
- 윤용출, 「조선후기의 부역 승군」, 『부산대학교인문논총』 26-1, 1984.
- 윤용출, 「조선후기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 이경순, 「조선후기 遊山記에 나타난 북한산의 불교」, 『인문과학연구』 20, 2015.
-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이근호·조준호·장필기·심승구,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8.
- 이근호·조준호·장필기·심승구,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8.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편』, 경성: 신문관, 1918.

이종수, 「조선후기의 승군 제도와 그 활용」,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편),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이종영, 「승인호패고」, 『동방학지』 17, 1963.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1985.

이현수, 「북한산성 축조와 경리청의 치폐」, 『한국군사학논집』 31, 1986.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2006.

조태건,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북한산 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2, 2016.

최병현, 「태고보우의 불교사적 위치」, 『한국문화』 7, 1986.

최선일,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불상의 제작시기와 조각승의 추론」, 『불교미술』 19, 2008.

판카즈 모한,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불교학연구』 9, 2004.

高橋亨, 『李朝佛教』, 大阪: 寶文館, 1929.

3. 기타

김우림, 「비편서 역사 속 인물을 찾아내다: 베일 벗은 천년사찰 북한산 삼천사지」, 《법보신문》, 2007년 12월 12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국문초록

한강 북쪽의 서울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불교와 연고를 가졌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유명 사찰이 들어서며 불교 신앙과 문화의 거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대에 한강 유역의 북한산과 불교의 만남, 통일신라시대 북한산의 상황을 소개했고 고려시대 남경의 주산인 북한산의 주요 사찰과 국왕과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또 조선 전기에는 수륙재로 이름난 진관사(津寬寺)를 비롯해 북한산의 몇몇 사찰이 왕실불교의 요람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찰과 승군을 매개로 하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산과 불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때에 충의를 앞세운 승군 활동으로 공적을 세운 불교계는 새로운 존립의 길을 모색해 나갔다. 국가에서는 승려 자격과 사찰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승군과 승역을 국역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17세기 전반 남한산성에서 출발한 의승군 운용은 1711년 북한산성이 축성되고 승영 사찰들이 건립되면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의 제도화 과정에서 서울을 방어하는 북한산성 승군의 운용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초대 8도 도총섭 계파 성능(桂坡聖能)의 활동과 업적을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승군제의 변천과 북한산 불교의 변화상을 검토했다. 이처럼 사찰과 승군을 매개로 하여 조선시대 북한산과 불교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 명산에 담긴 불교 전통의 가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투고일 2023. 11. 18.

심사일 2024. 2. 8.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북한산(Mt. Bukhan), 진관사(Jin'gwansa), 승군(monks' militia), 승역(monks' state duty), 북한산성(Mt. Bukhan fortress), 승영(fortress temples), 계파성능(Gyepa Seongneung)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Mt. Bukhan and Buddhism during the Joseon

Period: Focusing on 'Temples and Monks' Militia on the Mountain

Kim, Yongtae

Mount Bukhan (北漢山) surrounds the northern part of Seoul divided by the Han River. The mountain came to be related to Buddhism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of Korea. Mt. Bukhan served as the foothold of Buddhist faith and culture in the subsequent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s as temples began to be founded the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that the major temples on Mt. Bukhan had with the king as it became one of the prominent mountains of the southern capital of Goryeo.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some temples on Mt. Bukhan, including Jin'gwansa (津寬寺), well-known for suryukche (water-land ritual 水陸齋), functioned as a cradle for royal-family Buddhism during Joseon. Above all,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t. Bukhan and Buddhism, focusing on the major temples on the mountain.

After the militia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the Buddhist community needed to find a new way of survival. The state decided to use the monks within the state system of the military and corvee (i.e., unpaid) labor duty while legall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monks and temples. The military duty on the Buddhist community began for the defense of Mt. Namhan fortress in the early 17th century. This was expanded as Mt. Bukhan fortress was constructed in 1711 and fortress temples built.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monks' militia on Mt. Bukhan that would defend Seoul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the monk state duty, as well as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Gyepa Seongneung (桂坡聖能), the first supreme militia commander of the eight provinces (paldo dochongseop).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of Mt. Bukhan area with Buddhism diachronically, this research reflects on the traditional Buddhist cultural value and historical meaning of Mt. Bukhan.